

이룸소식 2015 08호

고객님 안녕하세요. 지난 이룸투자자문의 7월의 운용경과와 8월 운용 전망으로 인사드립니다.

조정을 지속한 7월

지난 7월 주식시장은 추가로 2%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주식시장의 하락조정 그리고 우리 주요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주식시장의 조정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7월 운용경과

지난 7월 우리 주식계좌들의 경우도 수익률이 약 1% 남짓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지수보다는 약 1% 정도 적게 하락한 것인데 이룸이 지난 6월 좋은 성과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전망

주식시장은 기업실적의 둔화와 중국시장의 조정국면 지속 그리고 미국 달러금리 인상가능성으로 당분간 조정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엔화의 약세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미 달러 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금리는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화환율의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없다면 주식시장의 조정폭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종합지수 기준으로 2000 포인트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종전망

지난 상반기에는 바이오제약과 화장품 등 소비재 종목과 일부 코스닥 종목들과 상승세가 컸습니다. 대형 제조기업들의 실적이 둔화되는 상태에서 기업실적이 호전되는 소비재종목들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들 종목의 상승폭이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들의 상승폭이 지속되면서 그 가치에 비하여 주가상승폭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이들 종목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룸은 바이오, 소비재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 제조업 또는 서비스 종목 중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경쟁을 위하여 변동성이 증가할 종목을 계속 유지하기 보다 이들 종목의 수익을 실현하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종목을 발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주도주가 변화하는 경우에도 고객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8월 이후 새로운 종목을 통하여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룸의 운용에 신뢰를 갖고 성원해 주시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 8. 9.

조세훈 올림 / 이룸투자자문 대표